

가족내 종교갈등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Religious Conflict Within the Family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 수 李 貞 德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全 美 慶

Department of Home Economic Education Doong-Guk University

Prof. : Lee Chung-Duk

Department of Home Economic Doong-Guk University

Jun Mi-Kyung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Multi-religious situation with one of the greatest characteristics in Korea society is forming the basic to induce the conflict among the religious.

The outline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1. The religious conflict are occurred between Christianity and Buddhism · Shamanism · Nonchurch.
2. The problems of sacrificial rite, oneself's persistent demand for religion and the other side's disallowance against the religion, and so on are indicated as one of the complication problems with the heaviest weights.
3. The power structure in family, the status of branch family, the rank of sibling, oneself's religion and so on are related as major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religious conflict.
4. The outcomes from religious conflict are forming on tacit consent, boycott, discontinuation, frequent quarrels and so on.
5. Most of the persons concerned about the religious conflict are put a great value on both home and religion and they are endearing for the harmony of them.

I. 서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1년 현재 우리나라 宗教人口 비율은 전체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기독교·천주교·유교가 각각 51.2%, 34.4%, 10.8%, 1.8%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1991). 그러나 통시적으로 볼 때, 인구증가 억제에 위한 가족계획 사업이 1962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1964년대부터 1989년까지 우리 나라의 인구성장률은 약 2.2%인 반면, 종교인구는 총 25년 동안 45,468,000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권규식, 1993). 이처럼 종교 인구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세계 역사상 놀라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증가율의 주축은 佛敎와 改新敎 신자이다.

그러나 종교학자들은 이러한 통계수치가 정확한 것이 못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自己確認(self identification)의 방법으로 종교인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교나 기독교에 비해 뚜렷한 교단조직이 매우 적은 유교 인구의 파악은 이 방법으로는 곤란하며, 사회의 통념상 新興宗教나 巫俗信仰을 가진 사람을 자기확인 방법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윤이흠(1994)은 자기확인 방법이 아닌 宗教的 心性, 實踐規範, 組織에의 參與 등 세 가지 차원을 통합한 의미로 사용되는 '實踐的' 宗教人의 개념에서 보면 한국의 종교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이 시점에서 '왜 우리의 종교인구 성장률이 이토록 높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해방이후 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정치적 혼돈의 격동의 세월을 통한 급격한 사회의 구조적 불안정과 불안감의 고조 속에서, 한국인은 종교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 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소외감을 내세가

보상해 주리라는 믿음이 싹틀 수 있었으리라 유추된다. 또한 산업화 과정속에서 기존의 家族形態와 家族意識이 대가족에서 소규모의 核家族化 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이 붕괴되었으며, 이때 절이나 교회, 성당 등의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가족과 같은 心理的 準據集團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소속감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宗教的 信念體系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불안감을 가진 개인에게 自我正體感을 확립시켜 주었다. 이처럼 한국의 종교는 한국인에게 불안한 현실생활을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의 종교인구 증가는 한국인의 宗教的 心性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儒敎 文化圈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외래종교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높다. 외래종교에 대한 수용성은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수 많은 종교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인은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기독교인에게서 더욱 그렇다. 기독교인의 종교집회 참여도는 매우 활발한데, 주 2회 이상이 35.4%, 주 1회정도가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1991), 새벽기도나 철야기도는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종교행사로써, 이원규(1993)는 한국 기독교의 열광주의, 부흥운동, 성령강림 운동 및 통성기도, 박수 치며 열광적으로 찬송 부르는 분위기를 볼 때 한국인의 종교성은 매우 감정적이고 열정적이라고 하였다.

고병익(1989)은 한국인은 어떤 원리를 받아들일 때에 끝까지 추구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는 끈질긴 기질을 즉 원칙론적 철저성의 전통과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조선 시대의 儒敎 尊重에 있어서는 끈질긴 이론 추구와 엄격한 생활문화 준수에 있어서 본국인 중국을 훨씬 넘어서는 철저성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 철저성은 아마도 유럽 제국보다 덜하지 않을 것이며, 대립하는 남북한에서 각기 自由民主와 共產主義를 추구하는

1) 이는 총인구수보다 많은 것으로 종교인구의 집계가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나, 다만 그 증가현상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연구자는 말하고 있다.

철저성이 각기 사상의 본원지보다 오히려 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개인 내면생활의 가치관은 여러 종교적 신념체계에 매우 관용적이어서 동시에 하나 이상의 가치관을 개인생활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누구나 대인관계의 位階秩序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儒敎의이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당혹감을 因緣緣起로 해석하는 人生觀은 佛敎의이며 사랑을 인간 삶의 원칙과 행동의 힘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行動哲學은 基督敎의이고, 내일을 예측하는 그의 숙명관은 巫俗의이다(윤이훈, 1982).

이와 같은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한국인의 종교심성을 바탕으로 종교인구는 빠르게 팽창하였다. 現代社會는 동일한 사회속에서 여러 종교들이 서로 서로 만나는 공동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종교적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인 '다종교 상황'을 만들어 냈다. 오늘날의 다종교 상황은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날, 단군의 개국을 경축하는 개천절이 국경일임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한 국가에 여러 종교가 있을 경우 宗教間 葛藤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종교간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사회의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인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며, 지나친 종교활동은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²⁾

그러나 해방후 가정학내의 연구중에는 宗教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통시적인 시각에서 가족 이데올로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정보화시대 열린시대에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하나의 결혼이 탄탄한 행진을 완성해 내려면, 가족원(특히 부부간)을 결집시키는 中樞的 理念이 어느 시대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들어 가정학에서 자주 논의되는 家庭哲學(부부간의 인생관 및 행복관의 일치)의 문제는 이러한 당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한 가족의 종교문제는 이러한 가정철학을 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된다. 宗教란 그 개인 혹은 집단이 갖는 궁극적인 信念體系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 지니게 되는 가치선택의 중핵적인 구실을 하게 된다. 한 가족에 나타나는 종교갈등은 곧 가족원의 신념체계 혼란에서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종교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종교는 무엇인가? 둘째, 종교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종교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넷째, 종교갈등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다섯째, 종교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가족내 종교갈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한국의 종교적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多宗教 狀況'으로서 다원주의적인 이 상황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다원주의는 현대사회의 한 일면으로서, 종교 다원주의는 '다른 종교 집단들이 경쟁적 상황에 공존하고 있는 것, 혹은 다양한 信條的·倫理的 강조들이 다양한 종교들에 의해 주어지며, 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종교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Berger, 1981; Gerharz, 1970; 이원규, 1992, 재인용).

한국은 철저한 다종교, 다교파, 다종파 상황의 전형적 양상을 띠고 있으며 어느 한 종교도 한국 사회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한국의 종교 상황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교에 끌어들이려는 '시장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경우 전통적으로 巫敎, 儒敎, 佛敎, 道敎가 함께 공존해 오다가 외래 문물의 도입과 함께 改新敎·天主教가 들어왔으며, 近代化·産業化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혼란속에서 수많은 新興宗教들이 출현하였다.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 儒敎가 아직도 우리의 도덕률과 예의범절의

2) 서울가정법원은 지나친 종교활동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여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95년 10월 4일, 한국경제신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유교가 오늘의 한국문화를 대표한다고 말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은 감이 든다. 불교 문화제가 한국의 문화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명산과 명승지에 찾아가는 때마다 불교의 寺刹을 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문화를 佛敎가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오늘의 한국 基督教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활발한 사회단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가 오늘의 한국문화를 대표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시 말해 기독교 문화가 우리 민족의 傳統文化의 자리에 이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겠다(윤이흠, 1993).

각각의 종교들은 다시 수많은 교회와 종파들로 나뉘어진다. 조계종·태고종·천태종 등 18개 종단으로 나뉘지는 佛敎는 해방후 1,300여개의 사찰이 1989년에는 8,892개로 늘어나 약 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改新敎의 경우 기장, 기감, 예장(통합), 예장(합동) 등 94개 교단으로 나뉘어지며 45년에 2,793개이던 교회가 90년에는 35,869개로 증가하여 약 13배 정도 증가하였고, 카톨릭 본당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31개에서 855개로 늘어나 약 6.5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노치춘, 1993; 이원규, 1992). 뿐만 아니라 한국의 新興宗敎는 그 계통에 따라 13개로 크게 분류된다. 즉 동학계(교단수 17), 정학계(2), 대순진리회가 가장 대표적인 증산계(30), 단군계(30), 각세도(11), 유교계(1), 물법계(20), 무속계(15), 기독교계(60), 불교계(70), 15개국에서 도입된 외래계(70), 연합계(23), 계통불명(30) 등으로 나뉘어 진다(조홍윤, 1987).

이와 같은 불교·개신교·천주교의 교단 증가 및 각종 신흥종교들의 성장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우리의 종교 상황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종교 간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교집단들의 내적 경쟁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러 종단과 종파의 종교가 공존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종교시장'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한 특징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政敎分離를 원칙으로 하고 있

으므로 '다종교 상황'의 종교의 다원화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어떤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지배하거나, 종교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교가 우리사회에 아직 없다는 점은 종교 갈등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다.

종교는 어떤 絶對信念體系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종교 상황은 우리사회 안에 다양한 절대신념체계의 공존을 의미한다. 어떤 종교를 통한 절대신념 체계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自我正體感을 확립시켜 주며, 이는 그 사람을 타종교인과 분리시켜 준다. 더불어 이 신념체계는 다른 경제적·정치적 신념체계와는 달리 양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집단의 무절제한 자기 팽창주의를 바탕으로한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확신이 優越感으로 전환되고 이것은 다시 자신의 종교를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합리화시킨다. 더불어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통한 타종교인과 구별되는 분리의식 및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종교인들 간의 충돌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때 자기 종교에 대한 우월감이 더욱 표면화되고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및 그들을 자신의 종교로 귀화시키려는 傳道行爲는 종교인의 의무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이런 배타주의적 태도를 통해 종교 갈등이 유발된다. 종교간 갈등은 종교라는 뚜렷한 경계선을 바탕으로 다시 같은 종교인에게는 강한 연대감을 타종교인에게는 거부감과 적대감의 배타성을 유발하여 다시 더 심한 종교 갈등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이와 같이 다른 종교와의 갈등이 그 종교 집단의 連帶感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은 다종교 상황에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Berger는 다원주의 상황은 종교의 사사회(privatization)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사사회는 어떤 분화된 제도적 영역들(예를 들면, 종교·가족·여가·예술)이 공적영역(예를 들면, 경제·정치·법)의 지배적인 제도들로부터 분리되고 사적인 영역으로 퇴거하는 과정을 말한다(Berger, 1981; 이원규, 1992 재인용). 종교가 독점적 지위를 잃고 그를 존재 가능하게 했던 그 사회적

蓋然性 構造가 해체됨에 따라 종교는 개인화되어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게 된다. 결국 전통사회의 종교문제가 ‘하나의 종교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우선 ‘어느 종교를 믿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종교 다원주의 사회가 가지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깔려 있게 된다(김종서, 1987). 따라서 종교가 개인의 선택이나 선호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은 종교간 갈등이 주로 사적인 영역 특히 家族의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가정내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다양한 탐사질문이 가능한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95년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총 2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였으며, 각 면접은 약 3시간정도가 소요되었다.

가정내 종교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연구자 주변의 교회, 절, 성당 등의 종교집단과 주변사람들의 소개로 만났다. 응답자에 대한 뚜렷한 선정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종교갈등의 심각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갈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기준이 현재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갈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지지 않고 있으며, 모집단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한

현 시점에서 심층면접을 통한 본 연구는 나름대로 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질문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즉 ① 종교생활에 대한 個人史, ② 종교갈등의 원인 ③ 종교갈등이 진행되는 과정, ④ 종교갈등의 결과, ⑤ 종교갈등의 해결책, ⑥ 종교와 가정의 調和를 위한 응답자의 노력 등에 관한 질문이다.

이와 같은 질문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자와의 심층면접은 녹음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연구결과는 이 기록의 질적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우선 정리하였으며, 이것을 記述的 形態로 편집하여 비교 논의된 것이다.

본고의 응답자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다니는 남자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며, 현재 종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27세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혼여성(전업주부가 17명, 취업주부가 4명)이다. 그밖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 <표 1>과 같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이제 각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종교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종교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1)를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종교갈등이 주로 基督教⁹⁾과 佛敎·巫俗信仰·無敎사이에서 일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령	학력	종교	자녀 수	갈등당사자들의 관계	
29세이하	3 무학	1 개신교	12 무자녀	2 고부관계	13
30대	10 국졸	3 천주교	5 1명	3 부부관계	4
40대	5 중졸	2 불교	3 2명	15 부모자녀관계	2
50대	2 고졸	4 무교	1 3명이상	3 형제자매관계	3
60세이상	3 대졸이상	13 기타 ⁹⁾	2	기타 ⁹⁾	1
합계	23 합계	23 합계	23 합계	23 합계	23

3) 원불교(1), 통일교(1)

나는 경우가 전체 23사례 중에 22 사례⁶⁾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신교와 佛敎·巫俗信仰·無敎간의 종교갈등이 23사례중 18사례로 가장 뚜렷이 대두되는 종교갈등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종교갈등에 있어 改新敎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우선 개신교의 保守主義적인 신앙태도와 타종교에 대한 두드러진 排他性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보수적·배타적 태도는 현대 사회연구소(1991)가 실시한 “우리 나라 종교지도자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타종교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승려(81.7%)와 신부(85.7%)는 ‘인류사회를 위해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타종교를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목사들은 ‘철저히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비율(30.5%)과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비율(29.9%)이 비슷하게 응답되어 목사가 승려나 신부보다 상대적으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타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질문에서 승려나 신부는 ‘그냥 다른 종교를 진실하게 믿도록 권유하면서 자기 종교를 설명한다’는 응답이 각각 82.5%와 8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목사들은 ‘개종토록 설득한다’는 비율이 72.9%나 된다. 또한 가장 거부감이 가는 종교를 물어본 결과, 승려들은 ‘개신교가 불교를 사탄의 종교라고 비난하고 佛像을 우상이라고 배격하는 등 불교를 적대시’하는 이유로 개신교(72.3%)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컸으며, 목사들은 ‘불교가 교리적으로 범신론이고 우상숭배의 종교로서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교(34.6%)가 가장 거부감이 가는 종교라고 하였다. 이처럼 타종교에 대한 排他的 態度는 목사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불교인이나 유교인들과 달리 대체로 개신교인들 자신의 종교에 대해 지니는 적극적인 태도 역시 종교간 갈등에서 改新敎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개신교가 바라보는 천주교 역시 ‘救援’문제에 있어 회의적이며 성서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종교로서 이해되고 있다. 내세지향적인 태도가 타종교인에 비해 두드러지는 개신교도에게 있어, 救援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개신교 신앙을 갖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으로써 소중한 가족 및 이웃들의 구원을 위한 전도활동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적극적 신앙자세를 보이게 된다.

가족내 종교갈등의 원인⁷⁾은 무엇인가?(연구문제 2)를 살펴보자. 대략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 원인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또는 무종교인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지나친 강요,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 제사 문제, 묘지 선택 및 장례의식 문제, 자녀와의 종교통일 문제 및 학업에의 지장을 이유로 자녀의 종교활동 금지, 헌금 문제, 개종후 적용 문제 등으로 요약되며,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지나친 강요·타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 및 제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요와 상대방 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인한 종교갈등은 특히 고부관계에서 시어머니의 강압적 태도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선 불교나 무속의 신앙을 가진 시어머니가 기독교 며느리의 종교활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요를 일삼는 경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집안내 발생하는 우환의 대부분을 며느리의 종교활동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인인 시어머니와 無敎인 며느리사이에서도

4) 종교가 다른 사람과의 이성교제로 인한 갈등으로 엄격히 말해 가족내 갈등으로는 볼 수 없으나, 결혼의 준비기인 배우자 선택의 과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하여 포함시켰다.

5) 본 연구에서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논의 되었다.

6)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통일교 가정과 비기독교인인 시댁과의 갈등이 있는 사례이다.

7) 본 연구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대두되는 종교갈등의 원인을 질문하였으며, 응답자는 갈등의 원인을 2개 이상 응답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낫하고 고사를 지내요. … 또 어머니는 한 집안에 종교가 두개면 망한다고 철저하게 믿는 분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불교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34세의 며느리)

“… 집에 모셔둔 마리아상이랑 촛불, 성경을 내던지고 집안이 발각 뒤집어졌어요. 마리아상이 두동강이 나고 성당 다니는거 하나 때문에 내가 뭘 해드려도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또 뭐 조그만 일만 있어도, 애들만 아파도 내가 성당 다녀서 그런 거라고 … 집안이 안된다고 … 뭐든지 내 핑계만 대요”(불교·巫俗信仰을 가진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34세 며느리)

“우리 어머니는 뿌리를 봐야하는 성격이거든요 … (교회에)한마디로 푹 빠졌어요. 뭐든지 교회에 갖다 부쳐요. … 무슨 사소한 일만 있어도 무조건 가정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찾아가고 … 내가 교회를 안나가니깐 뭐든지 내탓이고, 보는 사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 우리 동서(개신교인)가 하는 일은 다 맘에 들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맘에 안들어 하니 …”(개신교인인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36세의 無敎 며느리)

또한 제사로 인한 갈등은 개신교인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되는 문제이다. 가족내 종교갈등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제사문제는 전체 응답자중 12명이 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한국사회에 개화의 물결과 더불어 유입된 이래 세계교회 선교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 우리 문화와 충분히 동화되고 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사로 인한 가족내 갈등이 이러한 점을 대표하고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 祖上崇拜儀式은 전통적 가치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일종의 基層 文化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 추석이나 설날에 귀향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에 늘어난 ‘민족대이동’의 모습과 몇달전부터 기차나 고속버스에 예매하기 위하여 길게 늘어난 행렬 속에서 한국인의

이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서구의 가족과는 달리 한국가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서, 모든 가족원에게 儀禮的 行事的 참여는 그 참여여부를 떠나 가족원 각자에게 義務感으로 다가오는 행사이다. 의무적인 이 의례적 행사라는 만남의 장을 통해, 흩어져 있는 가족원 및 친족원은 친목의 도모와 더불어 서양과는 다른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儀禮的 關係는 친족관계 접촉내용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는 親族 關係가 한국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사나 명절시 겪는 개신교인들과 타종교인·無敎人과의 갈등은 한국가족의 매우 중요한 특징인 의례적 관계를 소멸시키거나 애정없는 의무적 행사로 전락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제사에 대한 개신교인의 태도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목사들의 응답에서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들의 거의 대다수(86.5%)가 傳統 儒敎式的 祖上祭祀를 반대하고 있으며(현대사회연구수, 1991), 이와 같은 응답의 결과는 가족원이나 친족원이 종교가 다를 경우, 심각한 마찰을 초래할 요소를 제공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제사로 인한 갈등은 개신교인들의 제사에 대한 거부와 비개신교인(천주교인 제외)들의 추도식에 대한 거부로 다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에서 제사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보다는, 연구자가 면접한 개신교인들의 제사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들은 祖上崇拜儀式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나 이외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들의 唯一神 思想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 제사상이나 차례상에 절하는 것을 귀신을 섬기는 偶像崇拜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처음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

더이상 지낼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지요.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석달 넘게 싸운거 같아요. ... 맞기도 많이 맞고 ... 근데 내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남편은 자식도 있는데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 나는 신성한 우리 집에 귀신을 불러오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제사문제로 형제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제사 때마다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40세 부인)

그러나 이러한 개신교인들의 태도는 비개신교인에게도 강한 거부감을 유발시킨다. 우리 나라 유교인이 91년 현재 전체인구의 1.8%에 불과하나 1984년에 실시된 한국갤럽연구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실천적 유교인은 91.7%에 해당한다. 이는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명확한 자기각성을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국사람의 대부분이 유교적 신념체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원규, 1993). 그러므로 儒敎思想의 중심적인 가치인 조상 숭배의식인 제사거부의 태도는 비개신교인들에게 심한 배타감을 유발하게 만든다. 또한 개신교에서 제사 대신 행하는 추도식은 개신교인들이 제사를 꺼리는 만큼이나 비개신교인들 역시 추도식을 꺼린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찬송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익숙치 않은 것이며, 몹시 어색한 일이다.

“5년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제사밥을 못 먹어서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요. ... 제사밥 한번 못 얻어먹으니까, 조상이 돌볼리가 있겠어요?”(개신교인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36세 無敎 며느리)

제사나 명절시의 차례는 핵가족만의 행사가 아니라 직계를 포함한 여러 친족들이 모이는 가족내 중추적인 儀禮의 行事로서, 이 행사가 원만히 치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간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한 파장이 가족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편(無敎)의 묵인아래 교회에 다니는 부인의 경우, 제사나 명절이 다가오면 갈등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사례를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추도식으로 바꾸고 나서 시동생들의 불만이 컸어요. 요즘은 전화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 장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제사 때나 명절 때만 되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괜히 냉장고를 뒤지면서 트집을 잡고 ... 짜증 내고 싸움을 걸어요. 그 후유증이 한달은 가는 것 같아요”(남편의 묵인아래 교회를 다니는 40세 부인)

“... (추도식)준비를 다 해놓으면, 그전까지 마루에서 얘기를 하고 놓고 있던 시동생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내성화에 교회를 나가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괜히 왔다 갔다하고 ... 결국에는 나혼자 기도하고 나혼자 찬송 부르고 ...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다들 들어오죠”(제사문제로 형제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39세 부인)

박근원(1994)은 개신교의 제사거부 태도는 保守的이고 根本主義的인 선교사들이 聖書文字主義的인 시각에서 조상제사를 그저 우상숭배이고 미신이라고 매도해 버린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때의 빚나가 버린 무비판적인 사고가 오늘날까지 한국 개신교의 밑바닥에 퇴적되어 있다고 하였다.

祭禮儀式에 대한 개신교의 지배적인 태도는 교회안의 갈등과 가족들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와 획일적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 韓國文化속에 어우러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개신교는 좀 더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敎理解釋의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앞서의 이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종교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연구문제 3)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① 고부관계에 있어서 兄弟順位에 따른 갈등정도, ② 分家라는 상태가 종교활동에 미치는 영향, ③ 權力構造가 종교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로 인한 고부간 갈등을 겪고 있는 13 사례 중에서 10 사례가 남편이 장남인 경우이다. 즉 만며느리의 경우가 고부간 갈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장남의 분가는 차남이하의 분가와 달리 분거의 형태로 부모와 장남의 가족은 하나의 變形된 直系家族이므로 장남가족은 시가와 함께 하는 하나의 생활단위를 갖는 경향이 강하다(최재석, 1982)고 볼 때, 시어머니의 맏며느리에 대한 태도가 次며느리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傳統的인 價値意識을 가진 시어머니는 맏며느리를 자신의 사후 자신의 대를 잇는 안주인의 역할자로 기대하는데, 그런 며느리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맏며느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신의 대를 잇는 손자·손녀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니가 맏며느리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우리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세요”(불교인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는 43세 기독교인 며느리)

또한 장남에 대한 시어머니의 강한 애착과 의존감은 종교갈등으로 인한 고부관계를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남편과 자식이 부인의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아들이 결혼전과는 달리 며느리를 따라 교회에 다니는 것에 시어머니는 심한 背信感을 느끼며, 이와 같은 감정이 중국에는 며느리에게 투사되는 것이다.

“시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해서 ...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장남)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 그런 아들이 자기가 절대로 안된다고 했는데도 나랑 교회를 나가니 ... 처음에는 ‘너나 다니지 왜 아빤이랑 용진이(손자)까지 끌고 가냐’며 난리였지요. ... 나도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불교·巫俗信仰을 가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39세 며느리)

“우리 남편이 공을 많이 들어서 낳은 자식이라요. 남편 이름이 절에도 올라가 대요. 그런 자식이 세례를 받았으니 ... 우리 어머니가 내집에서 나가라고 ...”(불교·巫俗信仰의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45세 며느리)

종교의 차이로 시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

갈등 당사자들이 한집에 거주하지 않는 分家의 상황은 그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가는 시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공간적으로 獨立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거리는 시부모의 눈을 피해 며느리가 혹은 며느리의 가정이 종교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도록 해주며, 이것은 특히 며느리에게 心理的安定感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가라는 상황이 자신의 종교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여러 사례가 있었다.

“시집살이하면서 별로 대들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저 순종하면서 속으로 삭히면서 살았어요. ... 분가 후에 시집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1년동안 집에 전화도 놓지 않았어요. ... 같이 살 때는 교회 다니는거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 분가 후에 몰래 몰래 다녔지요.”(불교·巫俗信仰을 가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39세 며느리)

“시부모님이 (남편이) 장남이라고 분가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수원으로 발령이 나서 여기에 살게 되었어요. ... 분가한 것에 대해 너무 너무 감사해요. 분가를 했기에 교회에 다닐 수 있었거든요. ... 만약 같이 살았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불교인 시부모 몰래 교회를 다니는 30세 며느리)

“집에 성경책이 있는 걸 (어머니가) 보고 몰래 다닌 게 들통이 났어요. 성경책을 찢고 난리가 났죠. 어머니한테는 ‘다시는 안 다닌다’고 하고 ...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 ...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지금처럼 성당을 다닐 수 있었어요?”(불교인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32세 며느리)

또한 본 연구에서 종교간 갈등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그 결과는, 가족내 權力構造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심층면접을 통해서 밝혀졌다. 權力이란 가족내 다른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면서 행동의 통제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을 때 가족내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종교갈등의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일반적으로 시부모의 위치가 갖는 權威와 더불어 경제적 능력이라는 자원까지 함께 공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 주는(경제적으로) 형편이에요. … (남편이) 성당 다니는걸 결혼초에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돈을 자꾸 얻어다 쓰니까, 어머니와 제가(종교갈등으로) 안 좋으면 아무래도 돈 얻어 쓰는게 그렇잖아요? … (처음에는) 저보고 성당 안다니면 안되냐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못다니게 해요 … 남편까지 그러니 정말 힘들어요”(불교인 시어머니, 無敎인 남편과 갈등이 있는 43세 부인)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는,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아직 어린 며느리인 경우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가면서 종교활동을 몰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사에서 절하는 것을 꺼리면서도 따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갈등이 그리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남편포함)가 전적으로 비밀(교회를 다니는 것)로 하기 때문이에요. … 저는 아직 새댁인데 처음부터 내주장이 강하면 좀 그렇잖아요. 서서히 할려고 해요. 또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단지 집안만 시끄럽게 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불교인 시부모 몰래 교회를 다니는 30세 며느리)

이 경우 갈등의 정도는 현재 그리 심하지 않으나, 갈등의 요소가 깊게 내재된 상태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내 자리가 좀 커지면” 그때에는 자신의 종교활동을 드러내 놓고 혹은 지금보다 활발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시부모의 개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머니가 늙고 또 병들면 아무래도 며느리 말을 들겠지요 … 지금은 내가 교회가자고 하면 싸움만 되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야하잖아요”(불교 무속인 시부모와 갈등이 있는 35세 며느리)

반면 결혼했수가 길고 자신의 발언권이 커진 중년

기의 며느리는 자신의 종교활동을 비교적 당당히 하고 있으며, 시어머니의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요에도 정면으로 맞서는 태도가 뚜렷하였다.

“ … (따로 살다가) 시부모(지병이 있음)를 모시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집은 예수집안이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들어와 살고, 그렇지 못하면 불광동(시동생의 집)에 가서 살라고 … ”(無敎인 남편, 비기독교인 시동생들과 갈등이 있는 39세 부인)

“고부관계는 다 괜찮은데 종교갈등 한가지 … (어머니가) 수중에 돈이 있었을 때는 뭐든지 다 베풀어 주면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그것 하나 못 하느냐’는 식이었어요 … 종교적인 것까지 주도권을 잡으려 하니까 너무 힘들었지요. … 식사전에 성호도 못 긋고, 성경책도 숨겨야 하고 … 어머니 강요로 절에 가서 108배 하고 나서, 고해성사 드리면서 울고 불고 … 집안에 모든 잘못된 일을 ‘종교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시던 분이 세월이 흐르고(결혼했수 17년), 시댁이 완전히 망하고 보니 … 어느날인가는 ‘너 성당 다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꾸준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불교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45세 며느리)

이런 과정에서 특히 시부모가 가지는 경제력은 갈등당사자들의 意思決定의 과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종교갈등의 결과(연구문제 4)를 갈등당사자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갈등의 정도는 그 관계가 가까울수록 치열하며, 관계가 멀면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관계 유형에 따라 갈등은 잦은 언쟁이나 묵인, 회피, 단절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간 갈등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부인이 자신의 종교활동을 들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 다소간의 마찰을 겪지만 현재는 남편의 묵인으로 종교활동이 가능해지거나, 더 나아가 자녀와 부인과 함께 남편까지 교회에 다니는 과정이 보편적이다.

“처음에는 남편 몰래 다녔는데, … 애들 때문에 들켰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잠깐 심심풀이로 다니

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너 혼자만 다닐 것을 강요하더라고요. 절대로 집(시댁)에는 내색하지 말라고 하면서 ... 근데 이제는 일요일마다 남편이랑 애들이랑 다같이 교회를 가요”(부인의 종교에 대한 반대로 남편과 잦은 언쟁을 겪은 경험이 있는 39세 부인)

“처음에는 맞아가면서, 싸워가면서 다녔지요. ... 남편이 나를 따라 교회에 다니지 얼마 안되는데 ...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술 먹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데 그게 좀 걸리나봐요”(부인의 종교에 대한 반대로 남편과 잦은 언쟁을 경험 했던 40세 부인)

부부간의 갈등의 경우 남편은 無敎이거나 불교신자이며, 부인이 기독교인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이는 김광익(1992)의 “도시중산층의 종교생활”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부인은 남편을 비롯하여 자녀를 기독교로 改宗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남편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지만 결국에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거나(신앙이 없는 상태라도), 부인의 종교활동을 묵인하는 결과로 크게 요약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부인이 교회나 성당을 다니게 되면 처음에는 자녀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남편도 이를 묵인하거나 자녀와 함께 교회나 성당을 다니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결혼전에는 부인의 종교활동을 인정하였으나 결혼후의 태도 변화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연애때는 성당다니는 것에 대해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 결혼후 한 1년이 지났나 ... 성당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을) 영세까지 받게 했는데 ...”(불교인 시어머니, 無敎인 남편과 갈등이 있는 45세 며느리)

반면, 불교나 無敎인 부모가 자녀의 종교활동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종교활동이 ‘학업에 지장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특히 고등학교 재학때까지는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자녀의 종교활동에 간섭을 하지만,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반대의 정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고등학생일 때)에는 식사전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상을 엮고,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 교회에 갔다 온걸 알면 때리고, 못가게 감시하고 했는데, 이제(대학교 2학년)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 부모님과 대화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일상적인 것만 이야기 하지요. ...”(불교인 부모의 반대를 무릎쓰고 교회를 다니는 20세 남자대학생)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종교갈등에 나타난 양상은 부모자녀의 종교에 대한 강요와 자식의 종교에 대한 거부의 태도로 크게 요약된다. 의식적인 강요는 기독교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불교와 無敎의 부모의 경우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요는 기독교인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자녀가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려면 종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남자들은 성인이 되어서 종교 갖기가 어렵거든요 ... 그래서 애들이 어릴때(국민학교 3·4학년) 남편과 시부모 몰래 영세를 받게하고 ... 지금(중학교 1·2학년)은 학원간다는 핑계로 둘러대면서 성당을 다니고 있죠 ... 애들한테 거짓말하도록 만드니까 결국은 비교육적이죠 ... (불교인 시어머니, 無敎인 남편과 갈등이 있는 있는 43세 며느리)

이 경우는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살려면 자녀들에게 되도록 일찍 신앙을 갖게 함으로써 ‘신앙은 스포츠처럼 몸에 배이게 해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어머니의 경우이다. 그러나 ‘신앙은 각자 커서 자의로 선택해야 한다’는 宗教觀을 가진 아버지의 태도는 다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내가 아이들을 아빠 몰래 유아세례까지 받게 했어요. 근데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날 남편이 아이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해서 ... 못 나간지 거의 반년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커서 스스로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다니도록 결정해야 된다

고 …”(無敎인 남편과 갈등이 있는 37세 주부)

종교의 갈등으로 인한 姑婦間 葛藤의 결과는 현재 며느리의 종교활동을 묵인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결과는 회피나 잦은 언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갈등이 묵인과 회피의 결과를 낳는 경우는 며느리의 꾸준한 종교활동에 지쳐버리거나, 더 이상의 불화를 원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며느리 역시 며느리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면서 비교적 조용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송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가정(특히 시댁의 일)과 며느리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든다.

“현재 우리 어머니는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하는 모양인데, 내앞에서는 이제 안하세요”(불교인 시어머니의 묵인 아래 교회를 다니는 38세 며느리)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는 등의 말을 듣는 게 참 싫더라고요. …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 특히 시댁에서는 흥잡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불교·巫俗信仰의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34세 며느리)

그러나 며느리의 종교활동을 묵인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결코 며느리의 종교(예를 들어 기독교의 하나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며느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며느리의 종교활동으로 인해 집안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종교에 더욱 깊이 귀의하거나 巫俗信仰에 과거보다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또 내가 교회에 매달릴수록 우리 어머니도 자기 신앙에 더욱 열심히예요. 제사때 가면 음식수나 양이 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점보러 가는 횡수도 늘어나고 … 제사차릴 때 조상 친구들 먹으라고 현관밖에 음식을 조금 내놓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음식에 꽂는 숟가락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 보란듯이 … 할아버지가 생전에 친구가 많았으니까 죽어서도 친구가 많

을 거라면서 … 그러니까 나는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우리 어머니는 절이나 점집을 더 열심히 다니게 되고 … 그렇게 됐어요”(불교·巫俗信仰의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39세 며느리)

종교로 인한 형제간 갈등은 관계의 斷絶이나 疎遠한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형제관계가 부부간이나 고부관계보다는 그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며, 경제적·물리적으로 서로 獨立된 가구를 형성하면서 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형제간 갈등의 주 원인은 만형의 제사거부나 추도식으로 인하여 야기되며, 이것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기독교인 형제들이 만형이나 만형수의 그러한 태도에 불만을 보이며, 마침내는 그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아예 단절되는 것이 그 보편적인 과정이다.

“만나면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 그렇지만, 형제들간에 정이 있는 건 아니예요. 평상시에는 안부전화도 없고,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만나요. …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고 있어요. … 이제는 크게 싸울 일도 없어요.”(제사거부로 형제관계가 단절되다시피한 57세 부인)

갈등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종교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연구문제 5)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과 종교와 가정의 調和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종교로 인한 갈등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다른 가족원의 배타적인 태도와 종교에 대한 강요에 忍耐하고 참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상대방의 개종 내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無敎인 응답자 역시 갈등의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집안 사람들이 다 놀래요. 나보고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 내가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싸우든지 터지든지 할텐데 내가 피하는 쪽이에요. …

타협을 하는 거죠.”(불교인 시어머니의 묵인아래 종교 활동을 하는 38세 며느리)

“나는 어머니가 뭐라 해도 별로 대꾸를 안해요. 그냥 듣고만 있어요. ... 자꾸 절에 가자고 하면 우선 알았다고 한 다음에, 기회를 봐서 다른 중요한 일을 일부러 만들거나, 다른 핑계를 대서 모면을 하곤 해요”(불교·巫俗信仰에 심취한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34세 며느리)

다음으로 종교와 가정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며, 이 둘의 조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전자의 질문에 대하여 종교를 위해서는 가정도 포기하겠다는 극단적인 경우도 3 사례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와 가정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거나, 종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가정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가정생활을 遺棄하면서까지 종교생활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었다.

“물론 종교와 가정 중 둘 중에 하나를 딱 내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종교를 택해야지 ... 그치만 내가 가정이 있는 이상 생활 속에서는 종교생활보다는 가정생활을 우선시하지요. 교회를 한번 안가고 말지 집안일(시댁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안 식구들한테 흠이 잡히면 안되잖아요.”(불교·巫俗信仰을 가진 시어머니의 묵인아래 교회를 다니는 38세 며느리)

응답자들은 갈등당사자들과의 언쟁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종교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듯하였다.

V. 결 론

현대사회의 宗教的 機能은 ① 인간의 일생에서 겪는 通過儀禮樣式機能 ② 年中行事儀禮(조상숭배)機能 ③ 위기극복을 위한 依支處機能 ④ 레크레이션기능으로 요약되며,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정의 기능 중 宗教的 機能은 가족원의 도덕적 품성함양과 조상숭

배기능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기능이 산업사회 후반으로 오면서 차츰 家族理念(family ideology)으로서의 성격을 띄우기 시작하였다. 가족이념이란 개념이 家政學에 적극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사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였다. 가족의 행동을 이끌어 주는 생활철학인 가족이념은 산업사회 이전시대에는 흔히 家風·家訓등이 주도하던 것인데, 한 가족을 강력히 묶을 수 있던 有形의 가훈 혹은 가족 통솔 철학은 산업화 사회진행과 더불어 사실상 그 위력을 잃어 왔다.

다종교 사회가 불가피하며 다종교간의 소통이 원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 한 가정이 선택하는 종교(또는 가족원이 선택하는 각 종교)는 유형 무형으로 그 가정의 理念體系의 내용으로 흡수된다.

종교는 한 개인이 지니는 窮極的 信念體系이므로 자칫 羸적 인간관계의 閉鎖性을 면키 어려워 종교가 표방하는 ‘삶의 본질적 自由추구의 달성’보다는 고정불변적인 ‘拘束’으로 한 개인을 전락시킬 우려도 높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불교와 기독교가 주축으로 된 우리 나라의 宗教人口 성장률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증가의 원인은 크게 한국인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宗教的 心性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종교가 현대 한국인에게 보금자리의 역할을 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종교적 특징은 ‘多宗教 狀況’으로서, 이는 종교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근간이 되고 있으며, 종교간 갈등은 주로 사적영역인 家族내에서 더욱 구체적 양상을 띠우고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 있어 가정의 종교적 기능을 이러한 家族 理念化 기능면으로 향후 확대해 보고자 하는 대명제를 위한 段階的 논문으로써 시도된 것이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는 종교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종교와, 종교갈등의 원인, 종교갈등이 유발되는 과정, 종교갈등의 결과, 응답자가 제시하는 종교갈등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통해 가족원의 신념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종교갈등의 완화책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종교갈등은 주로 전통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巫俗信仰과 기독교 특히 개신교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종교갈등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요 및 상대방 종교에 대한 거부 그리고 제사문제 등이 가장 두드러진 원인으로 밝혀졌다.

종교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권력구조, 분가상황, 형제순위로서, 이것에 따라 그 갈등의 양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종교갈등의 결과는 갈등 당사자들의 관계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부부관계의 경우 심한 갈등이후 목인이거나, 부인의 종교활동에 동참하는 경우로 귀착되는 해결책이 많으며, 고부관계의 경우는 목인·회피의 소극적인 대응책이 많았다. 형제간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관계의 소원이나 단절의 결과까지 초래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갈등당사자들은 대부분 가정과 종교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그들은 이 둘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안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전 이성교제시 종교의 차이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多元化 社會에서 한쌍의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그 결혼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먼저 同質的 價値觀을 지닌 남녀끼리 만나야 하며 그래야지만 그 결혼이 지향할 구심점 내지 궁극적 목표가 확고한 것일 수 있다.

또한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만의 만남을 넘어서는 시가와 친가라는 두 家族文化의 만남을 의미하며, 이 두 문화가 새롭게 형성된 가족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도 종교라는 문제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이성교제 시기에는 낭만적 사랑에 몰입된 두 사람에게 종교의 차이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지만, 결혼후에는 이것이 결혼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정도의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결혼전의 어머니의 종교를 인정한 시어머니도 내심으로는 '결혼

하면 달라지겠거니'하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 후 시어머니의 '시가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강압적 태도를 머느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종교가 다른 부부의 '빈둥우리시기'의 空虛感의 문제이다. 종교의 차이로 인한 부부간 갈등이 그리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해도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남편이 직업생활에서 은퇴하는 빈둥우리시기 이후에는 부부간의 표출되지 않던 갈등이 공허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시기에 부부는 자녀양육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身體的 老化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인생의 有限性을 인식하고 본질적인 自我를 생각하게 된다. 이때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지와 신뢰의 기대가 깊어지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종교의 차이는 이러한 서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서, 근본적인 가치체계의 차이로 인해 부부는 서로에게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셋째, 종교지도자 및 종교학자는 우리 나라 종교의 가장 큰 문제로서 종교인의 '祈福的'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기복행위는 종교인의 일상생활 중에서 자신의 혹은 가족의 세속적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서 그것은 종교인으로 하여금 自己中心的이고 利己的인 태도를 갖도록 만든다. 기복적인 신앙태도는 종교인의 宗教心과 宗教敎理를 융합되지 못하게 하며, 타산적인 신앙관을 전제로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일수록 이러한 태도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宗教敎育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권규식(1993)은 산업화에 의해 새로이 富를 축적한 新中間層의 종교적 귀의는 기복종교적 속성을 보이고 있으며, 疎外階層의 종교적 지향은 내세 지향적인 廣生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중류층과 하류층의 이와 같은 태도는 본 연구의 면접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종교연구에 있어서 階層性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 宗教間의 構

成比率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⁸⁾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우리 나라의 종교갈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여겨진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상자 모두를 면접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대두되는 문제이다.

【참 고 문 헌】

- 1) 권규식(1993), “한국종교와 사회변동의 특수성 연구”,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동연구원.
- 2) 고병익(1989), “한국문화와 세계문화”, 한국의 시민강좌 제 4집, 서울: 일조각.
- 3) 김광억(1992), “도시중산층의 종교생활”,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문옥표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동연구소.
- 4) 김종서(1987), “현대사회와 종교의 역할”, 현대사회 25권, 26-41.
- 5) 노길명(1983), “70년대 한국 종교의 성장과 앞으로의 전망”,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현대사회학회편,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 6) 노치준(1993), “해방 후 한국 종교조직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현대 한국종교변동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동연구원.
- 7) 박근원(1994), “한국 전통 제례의 기독교적 수용”, 기독교 사상 38권 제9호, 11-23.
- 8) 윤이흠(1982), “문화변동과 다종교 상황의 문제”,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 회편, 서울: 법문사
- 9) _____(1993), 현대인의 삶과 종교 -건강한 종교 생활의 길-, 서울; 고려한림원.
- 10) _____(1994), “한국종교 개관”, 한국인의 종교, 윤이흠외, 서울; 문덕사.
- 11) 이원규(1992), 한국교회학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 12) _____(1993), “해방후 한국인의 종교의식구조 변천 연구”,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성남; 동연구원
- 13) 정창수·김신열(1993),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한국사회학 제27집 여름호, 117-151.
- 14) 조홍윤(1987), “신흥종교”, 한국인의 종교, 윤이흠외, 서울; 정음사.
- 15)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16) 통계청(1991),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17) 현대사회연구소(1991), 우리 나라 종교지도자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8) 정창수·김신열(1993),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한국사회학 제 26집 117-151, 참고.